

## 참고 4.

###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코로나19 확산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는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상당 기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보다 취약성이 높아<sup>1)</sup>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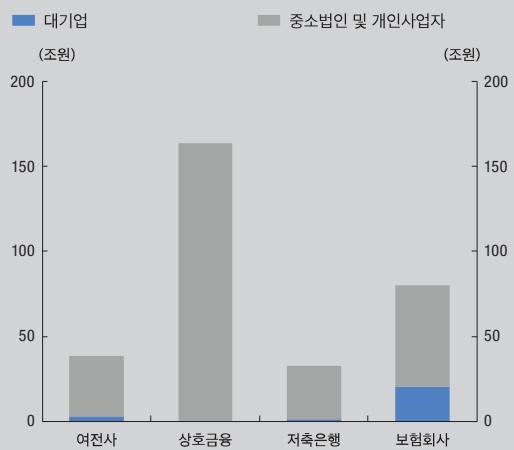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신용·시장·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 익스포저와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신용리스크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 기업대출의 비중 확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난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와 기업 매출 부진의 영향으로 대출 부실화 등 신용리스크<sup>2)</sup>가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3월말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sup>3)</sup>은 321.7조원으로 상대적으로 경기부진에 취약한 중소기업(169.3조원)·개인사업자(120.5조원) 대출이 대부분(90.1%)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차주별 기업대출<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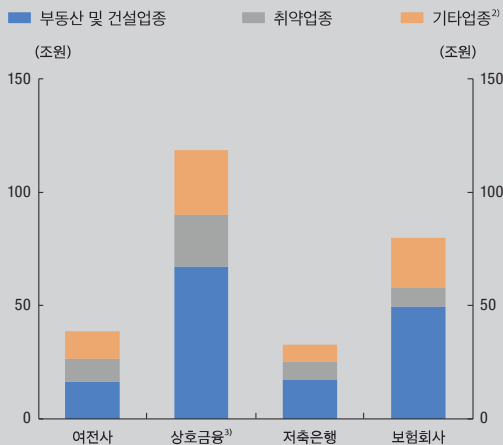
주: 1) 2020년 3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업종<sup>4)</sup>에 대한 대출 비중이 전체 기업대출의 18.4%로 그리 크지 않으나, 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대출 비중이 55.6%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부진으로 상업용부동산<sup>5)</sup> 등의 가격 조정 시 대출자산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비은행금융

-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보다 자본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작아 손실흡수력이 낮다고 평가된다.
-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는 크게 대출 익스포저와 금융상품·대체투자 익스포저로 구분되는데, 본 단락에서는 대출 익스포저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상품·대체투자 익스포저는 시장리스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시장리스크 단락에서 종합분석하였다.
-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합계 기준으로 증권회사(총대출 46.2조원)는 대출규모가 크지 않고 차주별 대출이 구분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 취약업종의 포괄범위는 비은행금융기관 업무보고서의 기업대출 업종분류 제약 등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운수창고업으로 한정하였다.
- 2020년 3월말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제외) 중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135.3조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55.4%를 차지한다.

기관은 저신용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상승<sup>6)</sup>하는 등 기업신용 관련 취약성이 누적되어 왔다.

### 업종별 기업대출<sup>1)</sup>



주: 1) 2020년 3월말 기준

2) 금융보험업 제외

3)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가계신용통계 기준)은 2020년 3월말 572.5조원이며,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sup>7)</sup>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계 신용리스크에도 취약하다. 업권별로는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저신용 차주 비중이 각각 23.7%, 13.2%로 두드러진다.

### 비은행 가계대출 신용등급별 비중(20년 4월말)

(%)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회사	계
고신용 (1~3등급)	11.4	41.8	65.0	68.9	58.4
중신용 (4~6등급)	64.8	45.1	27.8	25.5	32.7
저신용 (7~10등급)	23.7	13.2	7.2	5.6	9.0

자료: NICE평가정보

### 시장리스크 : 해외투자, 대체투자 리스크 부각

시장리스크는 최근의 금융시장 안정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리스크 익스포저<sup>8)</sup>는 2020년 3월말 1,266.4조원이며, 이 중 금융상품투자는 1,045.4조원, 대체투자<sup>9)</sup>는 221.0조원이다. 금융상품투자 중에서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외 채권 등 해외 유가증권투자<sup>10)</sup>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시장리스크 전이 가능성 및 외화자금 조달리스크<sup>11)</sup>가 증가하였다. 대체투자의 경우 국내외 부동산 투자 비중<sup>12)</sup>이 높아 부동산 경기 동향이 시장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었다.

6)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감기업에 대한 여신 중 저신용기업(NICE 신용평점 7등급 이하 차주) 여신 비중은 2015년말 42.3%에서 2018년말 49.6%로 상승하였다. 한편 은행의 저신용기업 여신 비중은 동 기간중 48.3%에서 41.3%로 하락하였다.

7) 비은행금융기관의 저신용 차주(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은 2020년 4월말 9.0%로 은행의 2.2%보다 높다.

8) 시장리스크 익스포저는 크게 전통적인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투자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구분된다.

9) 대체투자 규모는 증권회사의 2019년 9월말 기준 대체투자와 보험회사의 2019년 6월말 기준 대체투자의 합계이다.

10) 해외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2014년말 50.8조원에서 2020년 3월말 171.1조원으로 236.6% 증가하였으며 전체 금융상품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중 7.4%에서 16.4%로 상승하였다.

11) 해외 채권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FX스왑을 통한 단기 외화자금 조달 비중이 2019년 6월말 약 30~40% 수준으로 추정된다.

12) 대체투자 중 국내의 부동산 투자규모는 89.2조원(국내 67.1조원, 해외 22.1조원)으로 전체 대체투자 중 비중은 40.3%이다.

###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투자 규모(20년 3월말)

(조원)

채권		보험	증권	여전사	상호	저축	계
		회사	회사		금융 <sup>1)</sup>	은행	
채권	국공채	248.6	55.3	0.1	0.4	0.3	304.8
	특수채	132.2	63.8	0.6	1.5	0.2	357.4
	회사채 및 금융채	68.6	90.5				
	주식	34.7	12.9	2.1	0.03	0.3	50.0
	기타 유가증권 <sup>2)</sup>	98.5	46.9	10.5	4.8	1.2	162.0
	해외 유가증권	146.3	24.7	0.1	-	0.0	171.1
	계	728.9	294.2	13.4	6.8	2.0	1,045.4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2) 수익증권, CP 등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 업권 중에서는 유가증권 보유규모가 큰 보험회사와 고유동성 안전자산인 국공채 투자 비중이 낮고 회사채 등 신용물 채권과 주식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sup>13)</sup>의 시장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증권회사는 금융상품 투자 과정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RP 등 단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시장손실 위험도 증대되었다. 또한, 증권회사는 대체투자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ABCP에 대한 신용공여형 채무보증<sup>14)</sup>의 비중이 높으며, 해외 상업용부동산시장 악화로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

(조원)

	증권회사 <sup>1)</sup>	보험회사 <sup>2)</sup>	계
국내투자 (부동산투자)	40.4 (38.1)	130.8 (29.0)	171.2 (67.1)
해외투자 (부동산투자)	16.5 (11.1)	33.2 (11.0)	49.8 (22.1)
계	57.0 (49.2)	164.0 (40.0)	221.0 (89.2)

주: 1) 2019년 9월말 기준  
2) 2019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유동성리스크 : 증권회사, 여전사의 시장성 자금 조달리스크 상존

주요 유동성리스크<sup>15)</sup> 익스포저인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성자금 조달규모는 2020년 3월말 276.2조원이며 여전사(시장성자금 조달의 65.1%)와 증권회사(32.3%)가 대부분을 차지한다.<sup>16)</sup> 한편 비교적 안정적인 예수금과 수입 보험료를 주된 자금조달 기반으로 하는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유동성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사는 주로 여전채(카드채, 캐피탈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장기물 캐피탈채 발행이 위축되면서 단기 시장성자금 조달 비중이 상승<sup>17)</sup>하는 등 자금조달 구조의 취약성이 증대되었다. 2020년 하반기중 여전사의 여전채, CP 등 시장성자금 만기도

- 13) 2020년 3월말 금융상품투자 중 국공채 투자 비중은 증권회사 18.8%, 보험회사 34.1%이고, 신용물 채권과 주식·수익증권 투자 비중은 증권회사 51.1%, 보험회사 27.7%이다.
- 14) 증권회사의 2019년 9월말 부동산 PF-ABCP 채무보증 규모는 22.7조원으로 국내 대체투자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PF-ABCP 채무보증의 85.5%가 신용공여형이다.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은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경우에도 PF-ABCP 인수의무가 유지되고 채무의 최종상환을 지급보증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 15) 유동성리스크는 자금 조달·운용상의 만기불일치와 유동성불일치로부터 주로 기인하는데 본 단락에서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낮은 시장성자금 조달 관련 유동성리스크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 16) 2020년 3월말 총부채 대비 시장성자금 비중은 여전사 75.0%, 증권회사(투자자에게수금 제외 기준) 19.8%로 여타 비은행금융기관(1% 내외) 대비 높은 수준이다.
- 17) 만기 1년 이하 캐피탈채, CP, 단기사채의 조달 비중은 2019년 1월~2020년 3월중 통상 30~40% 수준인데 2020년 4월 들어 64.3%로 상승하였다.

래에 따른 차환리스크 규모는 2020년 4월말 기준 30.9조원이다.

증권회사는 단기 시장성자금(RP, CP, 단기사채, 콜) 조달 의존도가 높아 자금 조달·운용의 만기불일치 확대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 2020년 하반기중 초단기물인 RP, 콜을 제외한 증권회사의 차환리스크 규모는 2020년 4월말 기준 10.7조원이다.

####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시장성자금 조달(20년 3월말)<sup>1)</sup>

(조원, %)

	시장성 자금 조달	채권	단기 자금	RP 매도	CP	단기 사채	콜
증권 회사	89.3 (100.0)	17.3 (19.4)	71.9 (80.6)	40.6 <sup>2)</sup> (45.4)	16.1 (18.0)	9.3 (10.4)	6.0 (6.7)
여전사	179.9 (100.0)	162.2 (90.2)	17.6 (9.8)	0.01 (0.01)	16.9 (9.4)	0.8 (0.4)	-

주: 1) ( ) 내는 시장성자금 조달 내 비중

2) CMA 등 고객자산관리 관련 RP매도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OSCOM

증권회사는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현금성 자산<sup>18)</sup> (20.7조원)이 적은 대신 유동성이 낮은 신용물 채권 등의 보유규모가 크다. 또한 부동산 PF-ABCP 등 우발채무, 해외 부동산 미매각분 등도 유동성리스크<sup>19)</sup>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증권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해외 주가 하락에 따른 ELS 증거금 급증<sup>20)</sup>으로 유동성 상황이 크게 악화된 바 있었으며, 이후에도 ELS 발행<sup>21)</sup>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해외 주가가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유동성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평가

비은행금융기관은 그간 취약부문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만큼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리스크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시장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를 재촉할 하는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추구 행태 강화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 채권투자 및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외 금융시장 및 국내외 부동산시장 등 다양한 시장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비은행금융기관이 꾸준한 성장세<sup>22)</sup>를 지속해 온 상황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전파경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증권회사는 단기 시장성자금 조달<sup>23)</sup>을 통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구조의 핵심 업권으로서 주된 리스크 전이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적절한 정책대응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비은행 업권별 리스크 평가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증권회사	높음	보통	높음
여전사	높음	높음	낮음
보험회사	낮음	보통	높음
상호금융	낮음	높음	낮음
저축은행	낮음	높음	낮음

18) 현금성 자산은 파생거래에 따른 증거금을 제외하였으며 2020년 3월말 단기 시장성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28.8%이다.

19) PF-ABCP와 해외 부동산 투자분은 통상 시장에서 매각되어 증권회사의 자금 소요가 크지 않으나 시장여건 악화 시에는 증권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인수하게 되어 자금 소요가 증가하게 된다.

20) ELS를 자체해지(20년 3월말 48.7조원으로 전체 발행잔액의 66.2%)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월중 해외 주가 급락에 따른 마진콜의 영향으로 증거금 잔액은 2월말 6.5조원에서 3월말 12.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21) 증권회사는 3~4월중에도 7~1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9.7조원의 ELS를 신규 발행하였다.

22)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 규모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2011년말 34.4%에서 2018년말 52.6%로 상승하였다.

23) 증권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규모(자금순환통계 기준)는 2019년말 287.6조원으로 전체 기관간 차입거래액의 12.4%를 차지하며 특히,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차입기관으로 2020년 3월말 기관간RP 매도의 53.9%, 콜차입의 58.4%를 차지하였다.